

朝鮮 15世紀 塔內 奉安 佛像의 考察

이 분 희 *

- I. 머리말
- II. 造成背景
- III. 佛像의 現況
- IV. 塔內 奉安 佛像의 意味
- 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시대 이래 조성된 우리나라의 탑에서는 많은 불상들이 발견되었다. 불상을 봉안한 탑의 사례는 약 40여 기에 이르며, 불상은 100여 점에 달할 정도로 많다. 탑 안에 불상을 봉안하는 것은 그 전통이 매우 오래되며, 사례마다 다양한 용도로 매납되었다. 그동안 이들 불상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공예사에서 사리장엄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시기적으로는 통일신라시대까지로 한정된 경향이 있다. 그리고 주된 관심도 불상들이 탑의 어느 곳에 봉안되었느냐에 따라 불상이 사리를 위해 어떤 의미와 역할로 봉안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탑은 오랜 시간 동안 개보수되면서 새로운 사리장치가 계속 추가로 이입되어, 그 원형을 알기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탑에서 나온 이 100여 점에 달하는 불상 가운데 본 논고에서 다루는 30여구의 불상들은 모두 15세기에 탑에 봉안된 불상들이다. 필자가 이들 불상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상의 불상들이 작품의 완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기년작이며, 무엇보다 봉안

*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

치가 확실해 미술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15세기에 이런 작례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¹ 그럼에도 그동안 이들 불상에 대해서는 조각사에서 기년명 불상을 중심으로 다루어 졌으며, 왜 탑안에 봉안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은 간과되어 왔다.²

본 논고는 이들 불상들이 탑 안에 봉안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자 한다. 그러므로 왜 15세기에 이렇게 많은 불상들을 탑 안에 봉안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당시 근거가 되는 경전과 불교의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봉안된 불상에 대한 현황과 도상 및 명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세기에 어떠한 의미로 이들 불상을 탑에 봉안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造成背景

1. 탑내 봉안 불상의 기원

탑에 사리를 안치하면서 불보살상을 표현한 가장 이른 예는 간다라지역의 인도의 초기 사리장엄구에서 나타난다. 사리를 안치하고 봉안하는 내용이 문헌에 보이는 가장 오래되고 구체적인 기록은 스리랑카탑에 관한 마하밤사 『大史(Mahāvamsa)』에 자세히 보인다.³ 이 문헌은 고대 인도에서 사리를 어떻게 안치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리 안치실에 육각의 큰 돌로 상자 모양의 석함을 짜고 그 안에 보석으로 만든 보리수, 향수병, 금불상 등을 넣어 사리를 두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석함을 넣은 사리 納置室 벽에는 불전도 등의 그림으로 장식하기도 하고, 불상을 세우고 등을 켜고, 네 구석에는 금·마니·진

¹ 15세기 이후 탑에 불상을 봉안한 사례는 수종사오층탑에 1493년에 불상을 봉안하고, 이후 1628년 다시 불상을 봉안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² 박찬희는 최초로 탑에 봉안된 지장보살상에 주목하여 탑과 죽음을 연결시켜 논지를 전개하였다. 朴贊熙, 「朝鮮初期 塔 奉安 地藏菩薩像 研究」(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최근 탑에 봉안된 불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석사학위 논문이 배출되었다. 김추연, 「韓國 塔內 奉安 佛像 研究」(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6) 참고.

³ 주경미, 『중국고대 불사리장엄 연구』(일지사, 2003), p. 29 재인용; Wilhelm Geiger(trans.), *The Mahāvamsa or the Great Chronicle of Ceylon*(Colombo : The Ceylon Government Information Department, 1950), pp. 198-219 참조.



도 1 <카니슈카 대탑 사리기>, 기원후 1~2세기, 청동, 높이19cm, 폐사와 르박물관

기)>(높이 7cm, 런던대영박물관장)는 기원후 1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루비상아황금통형의 용기 측면에 압출된 화려한 불상의 부조가 있어 유명하다. 이들 사리기에 조성된 불상은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불상이 조성되는 기원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며, 사리를 공양하거나 수호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형 불상들이 탑안에서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부여 군수리사지 목탑지의 심초석 아래 부분에서 소형의 석제불좌상과 금동제보살입상이 발견되어⁶ 일찍부터 탑에 불상이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불국사 석가탑의 기단부를 해체복원하면서 완형의 통일신라시대 불상이 발견되었다. 적심속에서 발견된 이 불상을(도 2) 놓고 어떤 의미로 봉안되었으며, 어느 시기에 납입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주 황복사지 삼층석탑 사리장엄구>(692년, 706년)

주·금강석 등 네 보석을 둔다.”⁴ 라고 하였다.

이처럼 초기의 탑에 불상을 봉안하는 의미는 사리를 장엄·공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寶篋印經』⁵ 에는 귀금속 및 칠보를 사리장엄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칠보와 같은 세보로서 탑파에 공양하고, 또 불보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장엄하여 탑안에 안치한다”라고 하여 역시 고대 인도부터 탑에 불상을 봉안한 의미는 사리를 장엄·공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로 남아있는 사리구와 불상의 조상관계의 시원은 기원후 2세기경에 간다라 지역의 <카니슈카 대탑 출토의 사리용기>(도 1)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리 용기 뚜껑 위에 환조의 삼존상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비마란 제2탑 출토 황금제사리용

⁴ 高田 修, 「インド佛塔と舍利安置法」, 『佛教美術史論考』(中央公論美術出版, 1969), pp. 39-41; 金禧庚, 「한국불교의 불탑사리신앙」, 『月靜寺聖寶博物館 學術叢書Ⅲ-오대산 적멸보궁의 종합적 검토』(月靜寺聖寶博物館, 2002), pp. 15-17.

⁵ 若復有人, 用於七寶, 如法加持, 彫作諸佛及菩薩, 安置塔中, 云云; 신대현, 『한국의 사리장엄』(혜안, 2003), p. 25 참조.

⁶ 백제의 목탑지의 심초석과 함께 소조상의 편들이 발견되어 이를 탑내 봉안되었던 소조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림사지나 임강사지에서도 탑내 소조상이 출토된 바 있다. 李炳鎬, 「부여 구하리 출토 소조상과 그 유적의 성격」, 『백제문화』36(2007.2), pp. 67-100 참조.



도 2 <경주 불국사 석가탑 봉안 불상>, 통일신라, 청동, 높이3.5cm, 불국사



도 3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봉안 불상>, 고려, 은제, 높이9.7cm, 월정사 성보박물관

에서⁷ 발견된 두구의 불상은 왕실발원으로 조성된 당대의 뛰어난 조각상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또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에서는 1층 옥개석 상면 중앙의 방형 사리공에서 신사리와 법사리가, 기단부 심초석 상면의 사리공에서는 불상이 발견되었다. 봉안된

형식은 다르지만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는 3층 옥개석 상부의 사리공에서 발견된 금동탑안에 불상과 사리를 봉안한 형태인데, 불상을 사리를 넣는 내함의 대응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탑에 불상을 봉안하는 예가 늘어난다. 대표적인 예로 <월정사 팔각구층탑>을 들 수 있는데, 오층에 불상을(도 3), 일층에 사리와 법신사리인 <전신사리경>을 봉안하였다.⁸

유물은 현존하진 않지만 관련된 기록을 보면 조선 초의 목탑에 신사리와 법사리, 그리고 불상을 함께 봉안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연복사 목탑의 경우는 “맨 위에 불사리를, 중간에 대장경을, 맨 아래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후에 문수회를 설하였다.”라는 기록을 통해⁹ 사리, 법사리, 법신불을 함께 봉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흥천사 사리각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¹⁰ 이처럼 조선초기의 목탑에서는 불상과 대장경, 그리고 사리를

7 금동함의 명문에 “불사리 4과와 함께 금제아미타상 1점, 무구정경 1권을 탑안에 봉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8 월정사 탑 봉안 불상에 대해서는 주경미, 「고려시대 월정사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재론(再論)」, 『진단학회』 113(진단학회, 2011), pp. 65-68 참조.
 9 위에는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고, 중간에는 대장경을 간직하고, 아래에는 비로자나불상을 안치하니, 국가에 복을 내리어 만세토록 영원히 이로울 것이다. 여름 4월에 문수법회를 열어 낙성을 하고, 주상께서 신 권근에게 그 시말을 기록하도록 명하셨다. 洪武26年 癸酉 仲秋, 태조2년, 권근, 『演福寺塔重創記』, 『陽村先生文集』, 제12권, 記類, p. 58, 『陽村先生文集』Ⅱ(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회), p. 236 참조.
 10 강병희, 「興天寺 舍利殿과 石塔에 관한 연구」, 『講座美術史』19(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2), pp. 237-269 참조.

함께 봉안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고려후기부터 비교적 작은 석탑의 경우에는 탑에 봉안 되던 신사리와 법사리가 주로 불상의 복장으로 옮겨지며, 더 이상 탑에는 이러한 봉안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특히 조선 15세기에는 탑에 불상을 봉안하는 사례가 급증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탑에 봉안된 불상들은 정확한 조성연대를 지닌 상이 많고, 그 양도 많으며, 작품의 완성도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다른 시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2. 경전보급과 의례를 통한 확장

조선 15세기에 이렇게 많은 불상을 탑에 봉안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관해서는 선종계열의 경전과 당시의 의례문 등 문헌기록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먼저 관련 경전 내용을 살펴보겠다.

〈수종사 팔각오층탑 삼존불〉(1493년)의 발원문에는

“...또한 이에 정성을 다해 눈동자를 點眼하여 평온하게 塔廟에 안치하니, 사방에 두루 일 이 잘 풀리고 소원을 이룸이 필히 원만하여지다...”¹¹

라고 하여 마치 법당에 불상을 모시는 것처럼 봉안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서 塔廟란 탑은 ‘stūpa’를 한자로 음역한 말이며, 廟는 그 한역으로 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金剛經』에 관한 다섯 명의 전문가 각 자의 견해를 풀이한 『金剛經五家解』의 「尊重正教分」제12에 탑묘에 대한 설명이 주목된다. 규봉 종밀은¹² 탑묘에 대한 해설에

“탑이란 변방의 사투리이다. 廟는 貌이니 탑 가운데 부처님의 모습을 안치한 것이다.”

라고 주석하였다.¹³ 이는 탑과 같은 의미의 ‘탑묘’의 개념이 그동안 부처의 무덤이라고만 인식되어 왔으나 ‘묘’가 부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탑 안에 부처를 안치하는

¹¹ 弘治六年癸丑六月初七日淑容○氏淑容○氏淑媛金氏等端爲」主上殿下聖壽萬歲亦爲兒息咸亨福壽○行○修釋迦如來一軀觀音菩薩一軀安激○○若其功德○意具○于後」主上所天 義莫重焉 兒息骨肉 情所篤也」富貴則極 難讀者 ○ 欲圖延年 常竭愚衷」百思莫伸 惟佛○○ 法門雖多 造佛是最」效肇禮誠 各捨己貲 重修古佛 莊嚴斯飾」虔點○眸安妥塔廟 能事方周 微願必圓」頌王之德 日月並明 先王之壽 天地同久」兩主大妃 中宮世子 誕膺純嘏 咸躋壽域」抑亦己身 既諸子甥 ○保康寧 福壽增崇」在在歲歲 涵○聖澤 生生世世 恒○主伴」

¹² 규봉 종밀(780~841); 唐나라 사람으로 27세에 수주도원에서 禪을 닦았다. 징관 국사의 제자이며 시호는 定慧 선사이다.

¹³ 〈尊重正教分〉第十二 “...復次須菩提 隨說是經 乃至四句偈 等當知此處 一切世間 天人阿修羅 皆應供養 如佛塔廟 大般若說 天帝不在 諸天若來 但見空座 盡皆 作禮 供養而去 窺觀波 此云高顯 塔者 邊國訛語 廟 貌也 於塔中 安佛 形貌 ...” 『金剛經五家解』(경서원, 2005), pp. 112-114 참조.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그리고 조선 초기의 승려 함허당 己和가 『금강경오가해』의 중요한 부분을 보충설명한 『金剛經五家解說誼』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저술된 후 우리나라의 금강경 유통이 이 책에 의해 주도될 정도로 많이 간행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이 널리 유포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⁵

또 다른 선종계열의 경전인 『禪門拈頌說話』¹⁶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선문염송』제1권은 석가모니불에 대한 30가지 話題를 수록하였는데, 그 중 15번째 화두가 塔廟이다. 세존께서 아난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탐묘를 만나자 누구의 탐묘이냐? 라고 묻는 아난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탐묘에 대한 설명으로

“모’라 함은 모양(貌)과 통하니, 옛사람의 모양을 방불케 해 모셨다는 뜻이다”

라 하여¹⁷ 탐안에 불상을 안치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선문염송』은 『염송』이라고도 하여 조선 초기의 선교 양종 시대에는 『전등록』과 더불어 선종승과의 시험과목이었으며, 조선시대 강당에서는 『화엄경』이상의 최고 위치를 차지한 경전이다. 이처럼 선종계열의 경전의 보급을 통해 탐에 불상을 봉안하는 것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경의 위의 내용은 조선 초기 주자성리학으로 지도이념과 생활질서를 잡아가고자 체제를 정비하던 『家禮』에서도 차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家禮考證』은 『가례』의 어려운 부분을 쉽게 풀이한 책으로 각 권에 항목을 설정하여 해설하고 인용한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제6권 상례(喪禮)편 〈修建塔廟〉라는 항에,

¹⁴ “廟”를 ‘廟者貌也 髣髴先人之貌也’라고 서술한 것은 3세기말 4세기초에 저술된 崔豹의 『古今注』의 내용 등에 보이며, 廟를 이처럼 해석하는 경향은 유교에서 조상 제사를 위한 사당에 조선의 형상을 모신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금강경에 주석을 할 당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¹⁵ 세종은 1447년에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수양대군에게 『釋譜詳節』을 짓게 하였다. 그는 1457년에 왕세자가 죽자 명복을 빌기 위하여 『금강반야경』을 手書하였고, 명을 내려 『능엄경』·『법화경』등을 대조하며 교정하게 하였으며, 弘濟·신미 등으로 하여금 己和의 『金剛經說誼』를 교정하고 五家解에 넣어 한 책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1417년(태종17)경 조선 초기의 승려 기화가 『금강경오가해』의 중요한 부분을 보충 설명까지 합하면, 六家解라고 말할 수 있다.

¹⁶ 고려시대의 승려 覺雲이 眞覺國師 慧諶의 『禪門拈頌』에서 주요한 말을 뽑아 거기에 해설을 붙인 책이 『禪門拈頌說話』이다.

¹⁷ “...廟者貌也 髣髴先人之貌也...” 해심·각운 지음, 김월운 옮김 『선문염송·염송설화 1』(동국역경원, 2005), pp. 112-114 참조. 이러한 개념이 탐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의미에 불상을 봉안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은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탑묘라는 것은, 廟라는 말이 모습이라는 뜻인 貌이므로, 탑 안에 부처의 형상을 안치한 것이다.”

라고 『금강경』의 註를 인용하였다.

뿐만아니라 “탑안에 불상을 봉안했다”라는 내용은 조선시대 불교의례집에도 등장하는데, 이는 더욱 구체적으로 탑을 조성할 시 불상을 봉안하였음을 알려준다. 조선 초기는 선종불교가 불교의 주된 흐름이었으며, 불교의례 실행 양상은 고려시기보다 더욱 消災 招福의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명복을 비는 薦度佛事가 유행하여 불교가 의례중심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治國의 차원에서도 유교의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로 인해 불교의 종교적 기능을 무시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19년(숙종45, 강희58) 해인사에 重刊한 목판본에 당시 예불 및 공양의례와 點眼文과 여러 請文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塔點眼文에

“특별히 양공에게 명하여 정성스럽게 某塔 某층 一座를 만들고, 그 안에 불존상을 모시고 某사찰 뜰에 정성스럽게 법연을 베풀어 점안한다.”¹⁸

라고 하여 탑에 사리와 사리를 위한 사리장엄구를 봉안하는 대신 불상을 안에 모시고 점안한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한다. 이 탑점안문은 1719년에 다시 간행된 목판본으로 이미 그 이전부터 이러한 의례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19세기에 불교의례를 집대성한 『釋文 儀範』에도 그대로 전수된다.

이처럼 탑묘에서 묘를 무덤의 의미가 아닌 ‘貌’ 즉 부처의 형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탑안에 부처를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현실에서 인식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금강경오가해』에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오래된 전통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례에까지 널리 보급되어 실생활에 유행한 것은 조선 15세기로 이해된다. 물론 이 시기에도 탑에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예도 있지만 불상이 이를 대체하는 양상이 큰 흐름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¹⁸ “...特命良匠 敬成某塔某層一座 內安某佛尊像 建于某寺庭中 虔設點眼法...” 『諸般文』(해인사 1719에 重刊; 朴世敏,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2輯(三聖庵, 1993), p. 667 참조)

Ⅲ. 佛像의 現況

1. 불상의 현황

그림 구체적으로 조선 15세기 탑에 봉안된 30구의 불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선 15세기 탑내 봉안 불상의 현황

	봉안탑명	불상현황	봉안장소	조성연대
1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불감(금동아미타불·관음보살·세지보살 삼존상, 아미타불 2구,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	하부 지대석	15세기
2	영암 용암사지 삼층석탑	도자기(금동지장보살상)	기단부	15세기
3	순천 매곡동 폐탑	불감 (금동아미타불상·관음보살상·지장보살상)	육개석 위쪽 사리공	1468년
4	김제 금산사 오층석탑	금동관음보살상 3구, 금동비로자나불상·관음보살상·지장보살상, 백옥제동자상	초층 탑신	1492년
5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금동아미타불상·관음보살상·지장보살상, 금동보살좌상	초층 탑신	15세기
6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금동불감(금동석가여래좌상, 금동반가사유상, 금동지장보살좌상), 목조불감(목조관음보살입상, 목조지장보살좌상, 목조사천왕상),	초층 육개석 원형공	1493년 납입
7	철곡 송림사 오층전탑	목조보살상, 목조지장보살상, 석불상 2구, 동불상 2구	1층 탑신	15세기
8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삼층석탑	동불좌상	상층기단내부	15세기

1)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봉안 불상

최근에 익산 심곡사 석탑을 해체 보수하면서 2층 기단 중대석 상면의 사리공에서 백자호 안에 금동여래입상 1구와 청동여래입상 1구, 청동원경과 향목, 그리고 사리 1과가 있었으며, 기단 지대석 안의 사리공에서 금동불감 안에 불상 7구가 기울고 쓰러진 채 놓여 있었다(도 4). <심곡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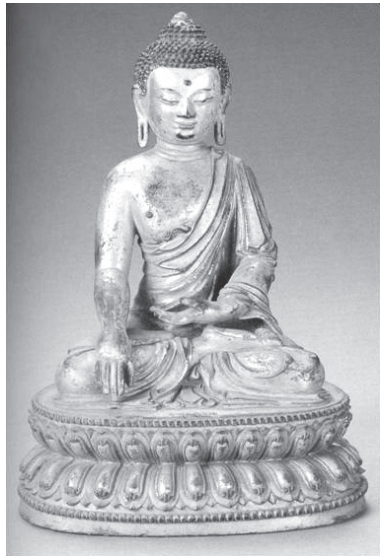
도 4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봉안 불상> 발견 당시, 조선 15세기, 심곡사



도 5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봉안 불감>, 고려말 조선초, 금동, 12.5(세로)×22.7(가로)cm, 심곡사



도 6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봉안 삼존불상>, 조선 15세기, 금동, 본존불(높이14.5cm), 관음보살상(높이12.4cm), 세지보살상(높이 12.4cm), 심곡사



도 7 <북경 수도박물관 불상>, 1403~1424, 금동, 북경 수도박물관

탑 봉안 불상)은 출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중요자료이다. 이 시대 불상들을 탑안에 어떻게 봉안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¹⁹

불감은 지붕이 없는 감형태이며, 타출기법으로 양 문의 안쪽에는 인왕상을, 몸체 내부 중앙벽에는 아미타 수인을 한 불상을, 그리고 양 협시로 본존을 향해 마주보며 합장을 한 보살상들을 새겼다(도 5). 불감밑면에는 불상 7구를 고정했던 흔적으로 구멍이 남아있다.

삼존불은(도 6) 뾰족하고 침잠한 얼굴과 우견편단의 착의법, 높고 뾰족한 정상계주 표현, 그리고 가슴에 두드러진 유두와 양 보살상의 높고 화려한 보관과 복잡한 영락장식, 귀고리 등의 번잡스럽운 조각 표현 등에서 조선 초기 명대 영락년간(永樂: 1403~1424)에 조성된 일련의 상들과 여러면에서 흡사하다(도 7). 특히 보살상들이 한 발을 풀어서 대좌에서 올라온 연꽃 줄기를 밟고 있는 모습과 한 손에 연봉오리를 쥐고 있어 명대 영락년간(永樂: 1403~1424)에 조성된 화려한 보살상들과 비교할 수 있다(도 8).

이처럼 이 상들은 외래불상양식의 모티브를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단순과 생략을 통해 우

¹⁹ 이 불상들은 최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전시되었다. 이에 관한 도록 『심곡사 칠층석탑과 사리장엄』(국립전주박물관, 2014) 참조.



도 8 <도금연화수보살좌상>, 1403~1424, 금동, 높이25.5cm, 대만 鴻禧 미술관(『金銅佛造像圖錄』, p.114-115)



도 9 <양산 통도사 소장 아미타삼존불>, 1450년, 금동, 본존불 높이11cm, 통도사성보박물관

리의 미감으로 변형시킨 수작이라 할 수 있다. 본존불은 <통도사소장 아미타삼존불(1450년)>(도 9), 사명대사 원불로 알려진 <포항 대성사 금동불>(도 10), 금강산 은정골에서 출토되어 현재 평양역사박물관에 소장된 <금동아미타삼존불>(1453년)과, 보살상은 <전주 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상>과 양식상 같은 모습이다.



도 10 <포항 대성사 금동불>, 조선 15세기, 금동, 높이9.4cm, 대성사



도 11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봉안 불보살상>, 조선 15세기, 금동, 지장보살상(높이6.8cm), 아미타불상1(높이7.3cm), 아미타불상2(높이7.3cm), 관음보살상(높이7.4cm), 심곡사

그리고 불보살상 4구를 안치하였는데, 향 우측 끝에는 정병은 쥐고 있는 관음보살상이, 향 좌측 끝에는 두건을 쓴 지장보살상이 양손을 모아 보주를 쥐고 있다. 그리고



도 12 <영암 용암사지 삼층석탑 봉안 금동지장보살좌상>, 조선 15세기, 금동, 높이13.3cm, 국립광주박물관

그 사이 아미타 구품인을 짓고 있는 두 구의 불상 가슴에는 끈자가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도 11). 4구의 불보살상의 밑면은 은재질로 마감하였고, 통견의 옷, 둥근 얼굴, 낮은 육계, 단순화시킨 영락표현 등은 전통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들 불상은 금강산에서 출토되어 평양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미타삼존상>(1429년), <금강 내강리에서 출토된 소금동불>들과 비교할 수 있다. 이들 보살상은 화려하게 영락을 표현하였고, 옷의 끝단과 두건 등에는 섬세하게 시문되어 있는 문양에서 보이듯이 매우 정교하고 장식적인 경향을 보인다.

2) 영암 용암사지 삼층석탑 봉안 금동지장보살좌상(도 12)

이 불상은 1966년 무너진 석탑을 다시 세울 때, 아래층 기단에서 백자사리호 안에 놓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영락장식의 표현이나 비례, 옷주름, 두건의 표현 등에서 <표충사 대원암 금동지장보살상>(1448년)(도 13)과 매우 흡사하다.



도 13 <밀양 표충사 대원암 지장보살상>, 1448년, 금동, 높이 12.9cm, 통도사성보박물관

3) 순천 매곡동 탑 봉안 불상(1468년)(도 14)²⁰

이 불상은 폐탑의 일층옥개석 위쪽 사리공의 불감안에 아미타불·관음보살상·지장보살상이 봉안되

²⁰ 허형욱, 「전라남도 순천시 梅谷洞 석탑 발견 成化四年(1468)銘 청동불감과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美術資料』70·71(국립중앙박물관, 2004), pp. 147-163.



도 14 <순천 매곡동 탑 봉안 삼존상>, 1468년, 금동, 아미타불(높이12cm), 관음보살상(높이11cm), 지장보살상(높이 10cm), 국립광주박물관

어 있었다. 발원문과²¹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확실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는 중요작품이다. 삼존불은 단정하고 이 시기 다른 불상에서도 나타나는 명상에 잠긴 정적인 분위기를 하고 있다. 청동불감은 견고한 형태의 팔각지붕이며 치미나 잡상까지 표현되어 있어 당시 건축물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4) 김제 금산사 오층석탑 봉안 불상²²



도 15 <금산사 오층석탑 봉안 금동관음보살좌상>, 조선 초기, 금동, 높이30.3cm, 금산사성보박물관

1971년 금산사 오층석탑을 해체하여 수리하였을 때 탑 안에서 각종의 사리구와 함께 紙本墨書의 1493년에 쓴 <母嶽山金山寺五層石塔重創記>가 발견되었다. 이 기록에는 금산사 오층석탑의 해체과정, 사리장엄구의 발견, 탑 안에 다시 사리장엄구를 봉안하는 과정까지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탑 안에 봉안된 불상들은 1492년 탑을 중창할 당시 조성하여 승려들이 모셨던 원불로, 16세기 전후의 불교조각사양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불상들이다.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30.3cm)(도 15)과 <금동관음보살좌상>(높이 12.5cm), <금동지장보살좌상>(높이 8.2cm), <옥제 동자좌상>(높이 4.5cm)

²¹ 발원문의 내용은 “成化四年戊子四月日 朝鮮國全羅道順天府南村別良里竹寺道人一禪 施主牧庵正悟金用等 願成彌陀 觀音 地藏 同月十五日 初點開眼隨喜 施主同發願文 我成三尊同隨喜九品蓮臺次定生親見三尊滿月容授記言 下悟無生……”이다.

²² 금산사 오층석탑 봉안 불상에 대하여는 이분희, 『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考察-탑 안에 봉안된 불상을 중심으로』, 『東岳美術史學』15(동악미술사학회, 2013), pp. 117-139 참조.



도 16 <금산사 오층석탑 봉안 금동삼존상>, 1492년, 금동, 비로자나불입상(높이14cm), 관음보살입상(높이 12.8cm), 지장보살입상(높이12cm), 금산사성보박물관

은 모두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삼각형의 연꽃잎이 맞붙은 티베트식 불상대좌에 침잠한 표정과 직선적인 옷주름이 특징이다.

한 세트로 구성된 <금동 비로자나불입상·금동관음보살입상·금동지장보살입상>(도 16)은 양식적으로는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출토 금동아미타삼존불상>과 비교할 수 있다.

상호와 옷 입은 모습, 특히 관음보살의 보관 등이 매우 유사하여 이들 불상들은 조선시대 양식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16세기 전후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5)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봉안 불상(도 17)²³

1971년 무량사 오층석탑을 해체 수리하였을 때 초층 탑신 안에서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지장과 관음보살의 금동삼존불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들은 아무런 장치 없이 잡석과 흙으로 채워진 위에 놓여져 있었다. 탑 안에서 소형의 불상들이 발견된 예는 많으나 비교적 큰 불상의 발견 예는 드물어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상체는 빈약하지만 뾰족하게 표현된 육계, 어색하게 큰 유두, 그리고 간략화된 옷주름의 표현에서 금산사불상들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도 17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봉안 보살상>, 조선 15세기, 금동, 관음보살좌상(높이25cm), 지장보살좌상(높이25.9cm), 불교중앙박물관

으로 좌·우에 지장과 관음보살의 금동삼존불이 발견되었다. 이 불상들은 아무런 장치 없이 잡석과 흙으로 채워진 위에 놓여져 있었다. 탑 안에서 소형의 불상들이 발견된 예는 많으나 비교적 큰 불상의 발견 예는 드물어서 주목되는 작품이다. 상체는 빈약하지만 뾰족하게 표현된 육계, 어색하게 큰 유두, 그리고 간략화된 옷주름의 표현에서 금산사불상들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²³ 무량사 탑 봉안 불상에 대하여는 홍사준, 『無量寺 五層石塔 解體와 組立』, 『考古美術』117(韓國美術史學會, 1973.3), pp. 2-8 참조.

6)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탑
봉안 삼존상(도 18)²⁴

수종사불상들은 조선왕실의 여성들이 시주 발원한 대표적인 불상들로 1957년, 1970년 두 차례에 걸친 해체과정에서 30구의 불상군이 발견되었다. 그 중 초층탑신석에서 발견된 금동불상 3구와 목조상 3구, 그리고 불감이 1493년에 봉안된 것이다. 이들 불상들은 금동석가불좌상을 주존으로 왼쪽에 금동반가사유상, 오른쪽에 지장보살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불감을 들어낸 바닥에 부서진 목조불감과 목조관음보살입상, 지장보살입상, 천왕상이 발견되었다.



도 18 <남양주 수종사 팔각오층탑 봉안 삼존상>, 1493년 봉안, 금동, 석가여래좌상(높이 15cm), 반가사유상(높이 5.3cm), 지장보살상(높이 3.8cm), 불교중앙박물관

7)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봉안
불상(도 19)²⁵

초층 옥개 아래 제1층 탑신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塼으로 덮여 있었고 이 전들을 해체할 때 상당히 큰 사각형의空洞 안에서 목불과 파손된 석불, 동불이 2구씩 나란히 발견되었다. 2구의 목불상 중 한 구는 두건을 쓴 지장보살불상임을 알 수 있다. 2구의 석제 불상 중 하나는 흉부만을 볼 수 있는 파편이고, 또 하나는 머리부분과 오른쪽 어깨부분이 결실되어 있었다.



도 19 <칠곡 송림사 전탑 봉안 불상>, 조선 15세기, 목조, 국립대구박물관 (『韓國과 中國의 考古美術』, p. 119, 도 104,105.)

²⁴ 수종사 탑 봉안 불상에 대하여는 박아연, 「1493년 水鍾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 『美術史學研究』 269(韓國美術史學會, 2011.3) pp. 5-37 참조.

²⁵ 전탑에 공동이 있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전탑 전체를 약화시킨 요인이 되므로 후세에 전으로 막아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근의 노인 중에는 유년시에 그 감실 속에서 발견된 불상을 본 기억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金載元, 「松林寺 塼塔의 舍利藏置 및 출토 유물」, 『韓國과 中國의 考古美術』(문예출판사, 2000), pp. 110-120 참조.

8)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삼층석탑 봉안 불상(도 20)

상층기단내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정상계주가 있고, 옷의 선은 마모되어 분별하기 어렵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량사, 송림사 탑의 경우는 규모면에서 큰 불상이 봉안된 사례이며, 금산사와 수종사, 그리고 익산 심곡사탑은 다량의 불상을 봉안한 경우이다. <순천 매곡동 탑 봉안 삼존상>(1468년)과 <수종사 팔각오층탑 봉안 삼존상>(1493년),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봉안 불상>들은 불감 안에 봉안된 형태이다. 그리고 도자기 안에 불상을 넣어 봉안한 형태로는 <영암 용암사지 탑에서 출토된 지장보살상>을 예로 들 수 있다. 도자기에 불상을 봉안한 형태는 <이성계사리구>나 <금강산



도 20 <해남 대흥사 북미륵암 삼층석탑 봉안 불상>, 조선 15세기, 금동, 높이11.9cm, 대흥사성보박물관

출토 불상들), <상왕산출토 불상들>의 예처럼 산이나 암벽에 불상을 봉안한 사례에서 많이 발견된다.²⁶ 또한 <무량사 오층석탑 봉안 불상>과 <금산사 칠층석탑 봉안 불상>처럼 사리공에 아무런 장치 없이 불상을 바로 봉안하는 예도 있다. 수종사와 심곡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탑을 중수하면서 불상을 납입한 사례이므로, 조선 15세기 탑내 불상의 봉안 형태는 수종사와 심곡사의 사례가 가장 원형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2. 명문분석

다음은 봉안된 불상들의 존명에 대해 살펴보고, 발원문이 있는 불상을 위주로 시주자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상들이 아미타·관음·지장상이므로 아미타신앙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산사탑 삼존불은 비로자나·관음·지장을, 그리고 수종사탑 삼존불은 석가·관음·지장을 삼존으로 구성한 예이다. 조선 시대 불교는 고려시대보다 더욱 기복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명복을 비는 薦度佛事가 유행하였으므로 아미타신앙이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²⁶ 금강산에서 발견된 소금동불에 관해서는, 정은우, 「여말선초 소금동불의 유행과 제작기법의 변화」, 『한국미술사교육학』 24(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0), pp. 259-282 참조.

데, 이러한 신앙에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미타와 관련된 신앙은 불탑 혹은 사리신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원내용이 아미타부처를 통해 壽福長生하고,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즉, 살아서는 수명장수와 복을 누리고 사후에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 불상들의 명문을 통해 시주자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왕실에서 직접 조성한 예로 수중사를 들 수 있다. <수중사탑 발견 불상>(1493년)들은 성종의 후궁들이 시주하여 중수·조성한 것이다. 금동석가불좌상은 1493년에 중수해서 넣은 것으로 바닥에는 ‘施主 明嬪 金氏’의 명문이 있다. 불상 안 복장에는 1493년 ‘淑容 洪氏, 淑容 鄭氏, 淑媛 金氏’등이 발원하여, 왕의 장수만세와 왕실의 안녕을 빌며 상을 조성하는 공덕을 으뜸으로 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통해 1493년은 명빈김씨가 세상을 떠나고 14년이 지난 후에 석가불을 중수하여 탑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찰의 불사에 왕실이 지원한 형태이다. 1971년 금산사 오층석탑을 해체하여 수리하였을 때 발견된 중창기에는 금산사 오층석탑의 조성시기와 중창불사의 현황과 관련 인물 등에 대해 소상히 적혀 있다. 그리고 성종대의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금산사 오층석탑의 중수과정 뿐만아니라 시주층도 적혀 있는데, 덕원군을 대공덕주로 한 왕실의 지원에 힘입어, 이 지역의 지방관료, 그리고 승려들이 대거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특이한 계층이었던 社長이 香徒조직을 독려하여 많은 시주자들이 불사에 동참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일반인들이 대거 참여한 대중불사의 경우이다. <순천 매곡동 탑 봉안 불상>의 발원문에는 1468년(성화 4)이라는 제작연대와 함께 특정한 관직명이 없고, 승속 277명의 시주자 명단이 적혀 있다. <괴산 봉학사지 오층석탑> 안에서 발견된 청동감에는 3구의 작은 불상과 묵서지본(22cm×12cm), 布片 3매가 있었다.²⁷ 묵서지본은 성화년간(1465~1487)에 조성한 것으로, 시주층이 이름과 직명도 없이 여러 사람 일백 명, 사내승려 20명이 조성에 참여했음이 적혀 있다.²⁸ 또한 <통도사 금은제아미타삼존불>(1450년) 복장문에는 400여 명의 발원자가 인명만 나열되어 있다. 금강산 표훈사에서 가까운 절벽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삼존불>(1451년)의 발원문에도 특별한 관직명 없이 40여 명의 평범한

²⁷ 金禧庚, 「高麗塔의 舍利藏置에 對하여」, 『韓國佛教美術史論』(民族社, 1987), p. 189참조.

²⁸ 1967년 도괴된 석탑 제2층 옥개석 상면의 원형사리공(경11cm, 심11cm)에서 유물이 발견되었고 명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忠淸道 槐山 鳳鶴寺石塔成化□□□ □□六月二十二日大施主口孝宗妻丁奇德僧元? 李□□ 隨喜□□金孝元 諸人等(?)一百名”.

寺內居僧廿銘 持□化主佛? 立創主道明 大化主□明鐵物敬善 佛像主□成 供養主信元學□子玉戒祖

승속이 함께 적혀있어 당시 일반대중들에 의해 행해지던 佛事방식을 알 수 있다.

조선 15세기에 승속과 남녀,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여 불상을 조성하는 것은 염불조직이 민간에서 성행했었고 불상을 조성하고 경찬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계를 맺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의 불당 경찬 때에 계를 맺는 일을 금지할 것을 청하는 내용에서²⁹ 신분의 차별이 엄격했던 당 시기에 부처앞에서는 귀천구분없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를 구성하여 불상조성에 동참했던 예는 <흑석사 아미타불상>(1457)을 조성할 때, 승려, 왕실후궁 및 대군을 비롯한 275인의 방대한 인원이 대거 참여하였고, <왕룡사원 아미타불상>(1466년) 조성시에도 왕실과 양반계층 및 60명이 넘는 신남신녀가 참여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이처럼 조선 15세기는 탑 안에 아미타신앙에 근거하여 수복장생과 극락정토를 기원하기 위해 아미타불상을 많이 봉안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시주층은 다양했지만, 일반대중들이 대거 참여하는 불사방식이 크게 유행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IV. 塔內 奉安 佛像의 意味

다음은 조선 15세기 탑에 불상을 봉안하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려 시기부터 법당에 불상을 봉안할 때, 복장을 하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복장은 불상이 형상의 物에서 신앙의 대상인 부처로 化하는데 조건이 되는 것으로, 불상은 이를 통해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된다.³⁰ 그런데 법당뿐만 아니라 탑에 불상을 봉안할 때에도 마치 법당에 봉안하듯이 불복장을 하여 점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견된 탑에 봉안된 불상들은 모두 복장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복장물은 일부 훼손된 것도 있지만, 15세기 탑안에서 발견된 불상들의 복장물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심곡사 탑 봉안 불상의 삼존불 가운데 본존불(높이14.5cm)의 복장을 살펴보겠다.

²⁹ “신들이 듣자오니, 지난번 佛堂의 慶讚때에 大君으로부터 興臺·樂工에 이르기까지 무릇 會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契를 맺었다 하오니, 가령 계를 맺는 사람이 모두 착하더라도 오히려 불가한데, 하물며 심부름하는 조치가 무리들로 더불어 계를 맺는 것이겠나이까. 급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를 맺는 것은 성심이 있으면 歸依하는 것이고, 성심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臺官의 아랑곳 할 것이랴.”하고, 윤희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31년 기사 (1449, 정통14)

³⁰ 문명대, 「불복장의 기원과 한국불복장의 전개」, 『열반, 궁극의 행복』(불교중앙박물관, 2014), pp. 200-207 참조.

이 불상은 머리까지 완전히 뚫려 있는데, 불상의 머리부분에서 발원문으로 보이는 종이류가 발견되었으나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다. 후령통과 그 옆에 등근원형을 팔엽으로 감싼 팔엽대홍련, 그리고 깨져 있는 수정사리병 안에 사리 1과가 있었으며, 안에 구멍이 없는 心珠와 일부 직물들, 향목편, 종이류들이 남아 있었다. 원형의 청동관은 오방경중 후령통에 놓았던 중방경으로 보인다.³¹ <해인사 목조비로자나불 좌상>에 1490년에 납입된 복장유물과 비교해 보면³² 작은 불상이지만 당시의 복장 격식을 잘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천 매곡동 탑 봉안 불상의 복장은 이미 도난당한 후 회수된 사례여서 복장의 원형을 알 수 없다. 3구의 불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불사리 4과, 안에 구멍을 뚫은 수정제 구슬 3개, 은색의 금속편 등이다.

수중사 팔각오층석탑 봉안 석가불상의 복장유물도 역시 후령통, 팔엽, 수정사리기, 오보병 등 위의 불상 복장과 매우 흡사하여, 이 시대 복장의 원칙을 알 수 있다. 이런 복장의 법식은 <통도사박물관 소장 금은제아미타삼존상>(1450년)의 복장에서도 일치하여, 원형의 중방경과 후령통, 그리고 수정사리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아주 작은 불상일 경우 후령통이 긴 원통형으로 대체된 것은 수중사탑에 봉안된 관음보살상의 복장과 매우 유사하다.³³ 고려말의 복장유물에서 등장하던 후령이 생략되고, 원통형의 후령통에 오방경 중 원형의 중방경만 놓고, 팔엽을 넣는 형식이다. 이는 당 시대 불복장형식을 따르면서도 소금동불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복장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복장을 하고 사리를 넣은 불상은 마지막으로 點眼을 하여 탑에 안치된다. 점안이란 불교신앙의 대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開眼式이라고도 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탑점안식 의례에도 포함되어 있다. <순천 매곡동 탑 조성기>에 승속 277명이

“...아미타·관음·지장상을 조성할 것을 발원하여 같은 달 15일 완성된 불상을 점안하고 구품연대에 태어나 수기를 받아 무생의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한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³⁴

또한 <수중사 팔각오층탑 삼존불>(1493년)의 발원문에는

³¹ 심곡사 탑내 봉안 불상은 2012년 6월에 탑을 해체수리 하던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마쳐 수정사리병은 복원되었다.

³² 『海印寺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해인사성보박물관, 2008)

³³ 안병찬, 「通度寺 소장 金銀製 阿彌陀三尊佛像의 腹藏物 調査」, 『불교미술사학』3 (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pp. 257-265 참조.

³⁴ 願成彌陀觀音地藏 同月十五日 初點開眼隨喜 施主同發願文

“...이에 정성을 다해 눈동자를 점안하여 평온하게 탑묘에 안치하니, 사방에 두루 일이 잘 풀리고 소원을 이룸이 필히 원만하여지다...”³⁵

라고 하여 법당에 봉안하는 불상의 형식과 동일하게 탑에 봉안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탑안에 봉안된 불상은 진신사리와 동일시 한다는 의미이며, 불상봉안을 사리봉안과 같은 의미로 봉안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처의 몸인 불상은 진신사리의 개념과 일치하는데 당시의 불상은 불복장을 하였고, 불복장 안에 사리를 안치한다. 이는 불상이 단순한 부처의 형상이 아니라 불복장에 사리가 모셔지면서 불상자체가 신앙성의 완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불상의 불복장의례가 보편화되면서 다른 사리장치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불복장형식으로 사리를 탑에 안치한 예는 조선초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는 불교가 대대적으로 성행하지 못하여 탑과의 건립이 어려운 당시의 현실적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탑 안에 진신사리와 법신사리, 그리고 불상을 함께 봉안하던 전통이 다른 사리장치를 생략한 채 불상만을 봉안하는 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불상들이 봉안된 탑들도 심곡사와 수종사를 제외하고 모두 이 시기에 중수한 예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석탑이 건립되는 예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 사찰에 석탑이 건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석탑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기존의 석탑을 보수하거나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⁶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조선시대에 들어서 불탑은 이미 그 중요성이 약화되어 모든 공양이 금당 안의 불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적 경향에 기인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즉, 탑에 봉안된 불상의 의미가 전 시대와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은 사리를 모시기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불상봉안에 더 의미를 둔다는 것이다.³⁷ 세종은 수양대군으로 하여금

³⁵ 弘治六年癸丑六月初七日淑容○氏淑媛金氏等端爲」主上殿下聖壽萬歲亦爲兒息咸亨福壽○行○修釋迦如來一軀」觀音菩薩一軀安激○○若其功德○意具○于後」主上所天 義莫重焉 兒息骨肉 情所篤也」富貴則極 難讀者 ○ 欲圖延年 常竭愚衷」百思莫伸 惟佛○○ 法門雖多 造佛是最」效肇禮誠 各捨己貲 重修古佛 莊嚴斯飾」**虔點○睥安妥塔廟 能事方周 微願必圓**」頌王之德 日月並明 先王之壽 天地同久」兩主大妃 中宮世子 誕膺純嘏 咸躋壽域」抑亦己身 既諸子甥 ○保康寧 福壽增崇」在在歲歲 涵○聖澤 生生世世 恒○主伴」

³⁶ 嚴基杓, 『조선시대의 탑婆』, 『博物館紀要』25(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10.5), pp. 51-77.

³⁷ 李穡은 〈善濟尊者眞堂詩筮書〉에서 보조존자의 영정을 조성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부처인데 그 이름은 아무개다 라고 한 뒤에야 비로서 귀의하고 우러러 예배드리며, 마음에 그 형상이 아물거릴 뿐입니다”라고 설명하듯이 대중들에게 불상이 신심을 일으키는 주된 대상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정희, 「《東國輿地勝覽》과 조선전기까지의 불화」, 『강좌미술사』2(한국미술사연구소, 1989.12), pp. 12-13 참조.

1447년에 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釋譜詳節』을 짓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불상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³⁸

이러한 경향은 당대에 유행했던 원불신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불이란³⁹ 개인이 사사로이 모시고 예경하는 부처를 말하는 것이다. 금산사 탑을 중수할 때에도

“...료명이 원불을 주성하고 학유가 원불을 주성하여 함께 탑 안에 넣었다...”⁴⁰

라는 기록이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불상을 개인의 원불로 삼아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였으며, 마치 법당에 불상을 봉안하는 것처럼 탑을 봉안하는 장소로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을 넣는 것은 탑에 진신사리를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 불상봉안을 사리봉안과 같은 의미로 봉안했을 것이며, 불복장을 한 불상이 다른 사리장엄구를 대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은 15세기 이후에는 1628년 수중사 오층탑을 중수하면서 다시 탑에 불상을 모신 예가 유일하며,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 15세기 탑에 봉안된 불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조선 15세기에 많은 불상들이 탑 안에 봉안되는 배경에 대하여 『금강경오가해』나 『선문염승설화』등 선종계열의 경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즉, 탑묘에서 묘라는 것이 그동안 알려진 무덤의 의미가 아닌 ‘貌’ 즉 모습이며, 이는 부처의 형상으로 이해하여 탑 안에 부처를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전의 근거를 기반으로 불교의례의 보급을 통해 유행한 것으로 보이며, 유교생활의 지침서인 『가례』에까지 차용되어 실생활에서 널리 확장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³⁸ “불상공양은 부처님께 직접하는 공양과 다를 바 없이 그 복과 덕이 무한하다고 하였고, 여래의 사리를 보면 그 것이 부처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여, 불상조성과 불사리 공양에 그 중요성을 크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유미, 『釋譜詳節의 涅槃相 고찰—Buddhacari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선학』18(한국선학회, 2007), p. 188.

³⁹ 교리적으로는 중생제도의 본원으로 나타나는 부처로, 十種佛의 하나, 八相으로 成道한 化身佛은 因行때의 誓願을 성취한 부처님이므로 願佛이라고 하나 조선시대 원불의 의미는 이것과는 다른 의미로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원불에 대한 신앙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⁴⁰ “...右舍利壬子十一月十五日還藏塔中又了明願佛鑄像學有員佛鑄像兼塔中...”

그리고 조선 15세기에 조성된 30구의 탑에 봉안된 불상들을 고찰하였는데, 이들 불상들은 봉안처가 확실하고 명문이 남아있는 예들도 많아 조각사 연구에 중요자료이다. 봉안된 불상은 대부분 아미타신앙에 의거하여 수복장생과 극락왕생을 빌기 위하여 봉안하였고, 불상조성에 승속과 남녀,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선 15세기 탑내 봉안된 불상들은 규모가 작은 금동불이지만 당시대 복장의식을 따르면서도 작은 금동불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일정한 복장을 하였고, 불복장에 사리를 봉안하고 점안하여 탑에 봉안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불복장에 사리가 모셔지면서 불상 자체의 신앙성의 완결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불상의 불복장의례가 보편화되면서 탑에 봉안된 불상의 의미가 사리 봉안을 위한 장치라기보다 불상봉안에 더 큰 의미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불상을 탑안에 봉안한 것은 삼국시대부터 오랜 전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시대의 사리장치와 불상의 관계 등과 면밀히 비교를 통해 분석해보면 이 시대 특징이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진행될 연구과제로 남긴다.

***주제어(Key Words)**_조선 15세기(Joseon 15c), 탑내 봉안 불상(塔內 奉安 佛像, buddhas enshrined within pagodas), 원불(願佛, buddha statue wishes and faith for the people), 불복장(佛腹藏, excavated relics from the buddha statue), 사리(舍利, sarira)

■ 투고일 2014년 8월 22일 | 심사개시일 2014년 8월 3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10월 12일 ■

참고문헌

1. 史料

- 『金剛經五家解』, 경서원, 2005.
『東文選』
『釋文儀範』, 安震湖, 법륜사, 1931.
『禪門拈頌·拈頌說話』혜심·각운, 동국대역경원, 2005.
『陽村先生文集』, 권근, 경인문화사, 1992.
『諸般文』, 海印寺 1719에 重刊; 朴世敏, 『韓國佛教儀禮資料叢書』2輯, 三聖庵
『朝鮮王朝實錄』

2. 圖錄 및 단행본

-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佛舍利莊嚴』, 국립중앙박물관, 1991.
『심곡사 칠층석탑과 사리장엄』, 국립전주박물관, 2014.
『열반, 궁극의 행복』, 불교중앙박물관, 2014.
『월정사성보박물관도록』, 월정사성보박물관, 2002.
『중국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주경미, 일지사, 2003.
『한국의 사리장엄』, 신대현, 혜안, 2003.
『海印寺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해인사성보박물관, 2008.

3. 論文

- 강병희, 「興天寺 舍利殿과 石塔에 관한 연구」, 『講座美術史』19,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2, pp. 237-269.
高田 修, 「インド佛塔と舍利安置法」, 『佛教美術史論考』, 中央公論美術出版, 1969, pp. 39-41.
김유미, 「釋譜詳節」의 涅槃相 고찰—Buddhacarit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선학회』, 2007, p. 188.
金載元, 「松林寺 塼塔의 舍利藏置 및 출토 유물」, 『韓國과 中國의 考古美術』, 문예출판사, 2000, pp. 110-120.
김정희, 「《東國輿地勝覽》과 조선전기까지의 불화」, 『講座美術史』2, 한국미술사연구소, 1989.12, pp. 12-13.

- 김추연, 「韓國 塔內 奉安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金禧庚, 「한국불교의 불탑사리신앙」, 『月靜寺聖寶博物館 學術叢書Ⅲ-오대산 적멸보궁의 종합적 검토』, 月靜寺聖寶博物館, 2002, pp. 15-17.
- 문명대, 「불복장의 기원과 한국불복장의 전개」, 『열반, 궁극의 행복』, 불교중앙박물관, 2014, pp. 200-207.
- 박아연, 「1493年 水鍾寺 석탑 봉안 왕실발원 불상군 연구」, 『美術史學研究』 269, 韓國美術史學會, 2011.3, pp. 5-37.
- 朴贊熙, 「朝鮮初期 塔 奉安 地藏菩薩像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명희, 「高麗時代 舍利莊嚴具 研究」, 『東岳美術史學』 5, 東岳美術史學會, 2005
- 안병찬, 「通度寺소장 金銀製 阿彌陀三尊佛像의 腹藏物 調査」, 『불교미술사학』3, 통도사성보박물관, 2005, pp. 257-265.
- 嚴基杓, 「조선시대의 塔婆」, 『博物館紀要』25,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2010, pp. 51-77.
- 유근자, 「조선 전반기 불상조각의 조성기 분석을 통한 조성 배경 연구」, 『講座美術史學』 36,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11.6, pp. 187-219.
- 李炳鎬, 「부여 구하리 출토 소조상과 그 유적의 성격」, 『백제문화』36, 2007.2, pp. 67-100.
- 이분희, 「金山寺 五層石塔 舍利莊嚴具 考察-탑 안에 봉안된 불상을 중심으로」, 『東岳美術史學』15, 동악미술사학회, 2013. pp. 117-139.
- 張忠植, 「新羅時代 塔婆舍利莊嚴에 대하여」, 『白山학보』21, 1976.
- 정은우, 「여말선초 소금동불의 유행과 제작기법의 변화」, 『한국미술사교육학』2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0, pp. 259-282.
- 주경미, 「고려시대 월정사 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재론(再論)」,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11.
- 진홍섭, 「高麗時代의 舍利莊嚴具 研究」, 『考古美術』 80, 韓國美術史學會, 1988
- 최응천, 「조선 전반기 佛教工藝의 도상해석학적 연구 : 명문과 도상적 특성」, 『講座美術史學』36,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11.6, pp. 319-342.
- 최성은, 「朝鮮初期 佛教彫刻의 對外關係」, 『講座美術史』26,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6 pp. 41-57.
- 홍사준, 「無量寺 五層石塔 解體와 組立」, 『考古美術』117, 韓國美術史學會, 1973, pp. 2-8.
- 황인규, 「麗末鮮初 演福寺 塔의 重營과 落成」, 『東國歷史教育』7·8, 東國歷史教育會, 1999, pp. 151-177.
- 허형욱, 「전라남도 順天市 梅谷洞 석탑 발견 成化四年(1468)銘 청동불감과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美術資料』, 국립중앙박물관, 70·71, 2004, pp. 147-163.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조성된 탑 안에서 많은 불상들이 발견되었다. 불상을 봉안한 탑의 사례는 약 40여 기이며, 불상은 100여 점에 달할 정도로 많다. 탑 안에서 불상이 발견된 사례는 그 전통이 매우 오래되며, 사례마다 다양한 용도로 매납되었다. 이 100여 점에 달하는 불상 가운데 30구에 달하는 불상들은 모두 15세기에 탑에 봉안된 것이다. 이들 불상들은 작품의 완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기년작이며, 무엇보다 봉안처가 확실하므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조선 15세기에 이렇게 많은 불상을 탑에 봉안하는 이유는 선종계열의 경전과 당시의 의례문 등 문헌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금강경오가해』나 『선문염송설화』의 내용에 근거하여 탑묘에서 묘라는 것이 그동안 알려진 무덤의 의미가 아닌 ‘貌’ 즉 모습이며, 이는 부처의 형상으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탑 안에 부처를 봉안하였다. 그리고 불교의례를 통해 탑에 불상을 봉안하는 것이 유행하여 실생활에서 널리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부터 이렇게 현실에서 인식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의례에까지 널리 보급된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 시기에도 탑에 사리장엄구를 봉안한 예도 있지만 불상이 이를 대체하는 양상이 큰 흐름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15세기에 조성된 30구의 탑에 봉안된 불상들은 대부분 아미타신앙에 의거하여 수복장생과 극락왕생을 빌기 위하여 봉안하였고, 불상조성에 승속과 남녀, 그리고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선 15세기 탑에 봉안된 불상들은 규모가 작은 금동불이지만 당시대 복장의식을 따르면서도 작은 소금동불에 맞게 취사, 선택하여 일정한 복장을 하였다. 그리고 불복장에 사리를 봉안하고 점안하였다. 조선 15세기는 불상의 불복장의례가 보편화되었으므로 불복장에 사리가 모셔지면서 불상자체가 신앙의 완결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탑에 불상을 봉안하는 것은 사리 봉안을 위한 장치라기보다는 불상봉안에 더 큰 의미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불복장형식으로 사리를 탑에 안치한 예는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는 조선 시대에 들어서 불탑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어 모든 공양이 금당안의 불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대의 신앙적 특징과도 연결된다. 즉, 조선 15세기에 탑에 봉안된 불상의 의미는 전 시대와 다른 특징을 갖는 것이다.

Abstract

Buddha Images Enshrined in Fifteenth-Century Pagodas of Joseon

YI Boon-hee *

In Korea, many Buddhist Images have been found inside pagodas built between the Three Kingdoms eriod and the Joseon Period. As many as 100 Buddha Images have been found in about 40 pagodas. Buddha mages enshrined in pagoda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lthough often for different purposes. Thirty of these Buddha Images were found in pagodas built in the fifteenth century. These Buddha Images are in elaborate form, and in most cases, the years of their production are known. Above all, they have great value in art history because their locations are clearly known.

Several documents, including scriptures written during the heyday of Seon(Zen) Buddhism, and texts used in rites, explain why so many Buddha images were enshrined in pagodas in fifteenth century Joseon. For example, *Geumganggyeong ogahae* (Five Commentaries on the Diamond Sutra) and *Seonmun yeomsong seolhwa* (Commentary on the *Seonmun yeomsong*) state that the character *myo* in the Korean word *tammyo* pagoda does not mean “tomb,” as it is generally understood, but “shape,” or, to be more specific, the shape of the Buddha. That is why a Buddha Image was enshrined in a pagoda. Afterward, Buddhist rites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custom of enshrining a Buddha Image in a pagoda, thus encouraging everyone to respect the custom. Although it is not known exactly when this custom first came to be observed, it seems plausible that the scriptural accounts generated the practice. It is true that pagodas did contain ordinary reliquaries in this period, but this tended to be replaced by a Buddha Images.

* Chief curator, Central Buddhist Museum, Seoul.

Most of the Buddha Images found in the thirty pagodas dating from fifteenth-century Joseon were enshrined to represent wishes for longevity and eternal life, based on the ideas of Pure Land Buddhism. Buddhist monastics and lay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participated in the enshrining of these Buddha Images.

The Buddha Images enshrined in fifteenth-century Joseon pagodas are made of gilt-bronze in small size; though small, they were installed with a sacred relic inside their bodies according to the current custom, and went through the eye-opening ceremony. The ritual of putting relics inside a Buddha Image was commonly practiced in fifteenth-century Joseon; in fact, placing relics inside a Buddha Image signifies religious completeness. In this regard, a Buddha Image enshrined in a pagoda would have been meaningful in itself rather than as a means of placing relics.

The custom of putting relics into a Buddha Image in a pagoda first appeared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This reflect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which is linked to the offerings were made to a statue of the Buddha located in the hall of monastery, rather than to a pagoda. In other words, statues enshrined in pagodas in fifteenth-century Joseon have different meanings from those of previous periods.